

2022. 09.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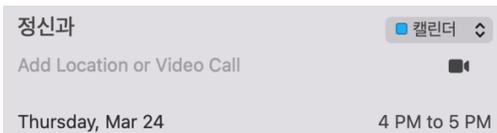
문학과 창의적 사고

B946074 김민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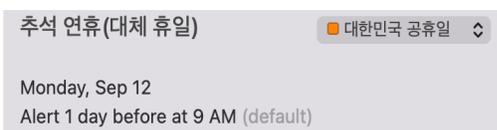
무엇이 나의 객관적인 취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다. 그리고 캘린더를 보며 나는 과연 무슨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았다. 내 캘린더에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내가 했었고 할 일들이 적혀 있다. 이제부터 캘린더를 보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적어보고자 한다.



누가 시킨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잡생각이 많은 편이다. 누가 던진 한마디에 하루 이틀을 허비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다. 나는 지금 돌이켜보면 오히려 군대에서의 단순한 생활이 더 나았을 지 모른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한다. 남들은 군대 꿈을 꾸면 기겁한다고 하지만 가끔 그런 꿈을 꾸면 나는 되돌아 가기 싫은 경험이기도 하지만, 또래 남자애들 끼리 부대끼며 생각없이 바쁘게 지냈던 시간들, 그리고 내 생각 없이 지휘자의 명령에 끌려다니며 행동했던 그 시간들이 그리기도 하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현재의 나를 과거의 군인 김민재가 본다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할까.



친구들에게 내 생각을 털어놓는 것을 싫어한다. 약 세 달 전부터 정신과에 다니기 시작했다. 생각 없이 편하게 지낸 군생활과 대비되게 내게 주어진 너무 많은 자유가 문제인 듯 하다. 4 주 정도의 간격으로 의사선생님께 상담을 받고 소량의 약을 받는다. 처음엔 그 약이 뭔가 엄청난 것 같고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두 번 씩 약을 섭취하는 것을 까먹게 되고, 굳이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약을 쌓아 놓고 있다. 그리고 상담을 가며 의사 선생님이 약은 어떻냐고 하면 좋다고 한다. 솔직히 현재는 굳이 갈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막상 상담이 필요할 때만 가면 너무 사람이 없어 보일 것 같아 꾸준하게 가는 중이다. 그리고 나름대로 조언도 얻고 좋은 것 같다.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을 싫어한다.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휴일에 집에 하루 종일 박혀 있거나, 아침 늦게 까지 일어나지 않고 침대위에서 뒹굴거리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빈둥거리고 싶고 침대에 누워서 더 있고 싶지만 나는 습관적으로 컴퓨터를 켜서 개인 작업을 한다는 핑계로 각종 프로그램을 켜서 끄적거린다. 또는 의미 없이 밖에 나가서 문방구에 가거나 카페에 간다. 물론 이런 행위들을 한다는 것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또는 아주 비효율적인 행동 일 수도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현재 흘러가는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져 그러는 것 같다.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것을 좋아한다. 과 특성상 여자인 친구가 많은데 그런 친구들과 어울려 카페나 맛집을 가는 것도 좋아하고, 남자인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에 가서 노는 것도 좋아한다. 하지만 약속을 잡는 것이 너무 귀찮다. 그리고 막상 만나서 놀면 재미있을 것을 알지만 친구를 만나기도 너무 귀찮다. 하지만 내 맘 가는 대로 친구들의 약속을 잡지 않고 편한대로만 산다면 나중에 가서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사회적으로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 아닌 노력을 한다.

나는 항상 나름대로 나 자신을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글로 적어보니 나만의 기준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나는 맞춰지지 않은 큐브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